

또한번의 새로운, 혹은 마지막 시작

반평생 외국생활 청산 끝에 돌아와 부르는 귀거래사

朴異汶

포항공대 교수 · 철학

꼭 30년 전이었다. 나는 이미 몇년 전에 1년간 공부했던 파리를 향해 한국을 떠났었다. 명색은 '유학' 한다는 것이었으나 사실인즉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나의 결단은 껍 무모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 나는 이미 만 31세의 나이였다. 이미 梨花女大에서 4년간의 교편을 잡고 조교수의 자리에 있었다. 이점에서 당시 나는 '행운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다.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도 막막했다. 게다가 나의 건강마저 무척 나빠졌다. 공부하겠다고 떠나기로 했지만 정확히 무슨 공부를 한단가가 아니면 어떤 학위를 따보겠다는 구체적 계획이나 목적을 세우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언제 돌아와서 자리를 굳히고 출세를 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았다. 나는 막연히, 말하자면 덮어놓고 떠났다. 기약도 없이 막막한 객지 모험의 길로 나섰었다.

당시 나는 막연히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허황스럽게도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투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질식할 만큼 각박하고 아팠을 뿐 아니라 知的으로도 한없이 침침하고 정신적으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혼탁한 상황이었다. 나는 사회적·정치적 억압과 지적·정신적 어둠으로부터 해방되고자는 절실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라 밖에서의 30년 지적 편력

뼈 아픈 사실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해방은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외국에서밖에 찾을 수 없었다. 내가 하필이면 프랑스로 가게 된 것은 나의 대학에서의 전공이 불문학이었던 사실에도 있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그 몇년 전 소르본대학에서 1년간 불문학 강좌를 들었을 때, 특히 네쎬르라는 한 교수의 강좌에 반했었고 압도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엉성하기만 하고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난해한 詩作品까지도 황홀할 만큼 투명하고 시원스러운 설명이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나도 무슨 문학 작품, 무슨 문제라도 그 교수처럼 해낼 수 있는 투명한 이해력을 배우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나는 앎을 추구하고 있었다. 나는 앎의 투명성을 더듬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반성해 보면 내가 진심으로 저 깊은 속에서부터 갈구하고 있었던 것은 앎 자체, 앎의 투명성 자체가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영원히 해답이 없는 삶, 그리고 모든 존재의 궁극적 의미에 목말라 있었다. 나의 근본적 문제는 知的인 것을 넘어서 아니 그 이전에 종교적인 것이었다. 만약 앎 자체, 앎의 투명성 자체가 나의 실존적 문제였다면 나는 문학 대신에 수학에, 철학 대신에 자연과학에 관심을 쏟았을 것이다. 물론 지적인 문제와 실존적 문제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깊이 따지고 보면 구체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知的의 가치와 實存的의 의미는 서로 뗄 수 없이 역동적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으로 지적으로 투명해지지 않는 실존적 가치는 착각이거나 맹목적일 수 있고, 실존적으로 그 가치가 체현되지 않은 지적 투명성은 공허함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知的이고 實存的이라는 양면성을 띤 나의 어쩔 수 없는 거의 본능적 욕구 때문에 나는

철학을 하든 詩를 쓰든, 뜻대로 이루어지든 그렇지 못하든간에, 나는 그동안의 미약한 경험과 독서와 사색을 바탕으로 정말 나의 목소리를 찾아보고자 애써 보겠다. 나의 지적, 실존적 삶을 정리해보고 싶은 것이다. 내 자신에 정말 정직해 보겠다는 내면적 요청이 절실히 느껴진다.

문학도 건드려 보았고 철학도 뒤적거려 보았다. 무슨 학문을 하든 무슨 작업을 하든지 가능하면 전문화를 요구하고 또 전문화의 전문성의 필요를 절실히 요청하는 오늘날 사회적 또는 문화적, 아니 직업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쩌다가 哲學 교수가 되었어도 나는 나의 내적 요청 때문에 어떤 특수한 철학적 문제에만 매여 있기를 스스로 거부했고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게 되고 말았다. 자기의 전공을 극도로 전문화하지 않으면 직업상으로 불리하고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에도 획기적인 공헌을 하기 어려움을 알면서도 오

늘날까지 다른 길로 철학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나의 궁극적 관심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적이며 실존적 요청에 따라 나는 한국을 떠나 만 30년 동안 프랑스의 골목길에서 또는 미국의 허허벌판에서 자주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끝없는 추구와 방황과 방향의 길을 헤맸었다.

이제 30년의 긴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나는 지금 막 고국에 다시 돌아왔다. 3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갔던 나의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知的 혼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솔직히 말해 實存的 허탈감을 극복할 수 없다. 30년의 세월이 엇그제 같이 느껴지지만 나의 머리는 어느덧 남달리 유난한 백발로 변했다. 내 마음은 아직도 젊고 왕성한 의욕에 차 있지만 어느덧 나의 육체는 홀려간 긴 연륜의 둔탁한 물리적 무게를 느낀다. 그러나,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되돌아온 조국의 땅에서 다시 또 한번의 인생을, 가능하면 또 한번 30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

30년 만에 돌아온 고국의 변화는 상상을 넘어설 만큼 크다. 30년 전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우선 시작적으로 한국의 山川 그리고 도시와 마을의 모습이 크게 변했다. 그 내막이 어떻든간에 오늘날 한국인의 경제적 생활은 30년 전에 비해서 풍요하다는 정도를 넘어서 너무나 사치스럽다. 한국의 변화는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의 지적, 교육적, 문화적 그리고 학문적 수준은 특히 지난 약 15년간 놀라운 도약을 성취했다. 앞으로는 더욱 나날이 달라지리라고 확신한다.

내가 피상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한도에서 말해도 나의 분야인 철학계도 예외는 아니다. 10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 학위를 따고 돌아온 사람들을 여러 대학에서 서로 끌어 모셔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외국에서 돌아온 몇십 명의 이른바 1류 대학 철학박사들이 시간 강사 자리만이라도 얻으려고 경쟁적으로 여러 대학의 좁은 문을 두드린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철학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 앞으로도 적어도 양적으로 더 많은 철학박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임에 틀림없다. 바로 엇그제 한 철학자들의 모임에서 몇사람의 논문 발표를 들으면서 그 논문의 높은 학술적 수준에 크게 감명을 받았었다. 30년 전은 물론 15년 전, 아니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그와 같은 논문을 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철학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듯 출판되고 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다름없이 한국의 철학계도 급속도로 발전했음에 틀림없고 앞으로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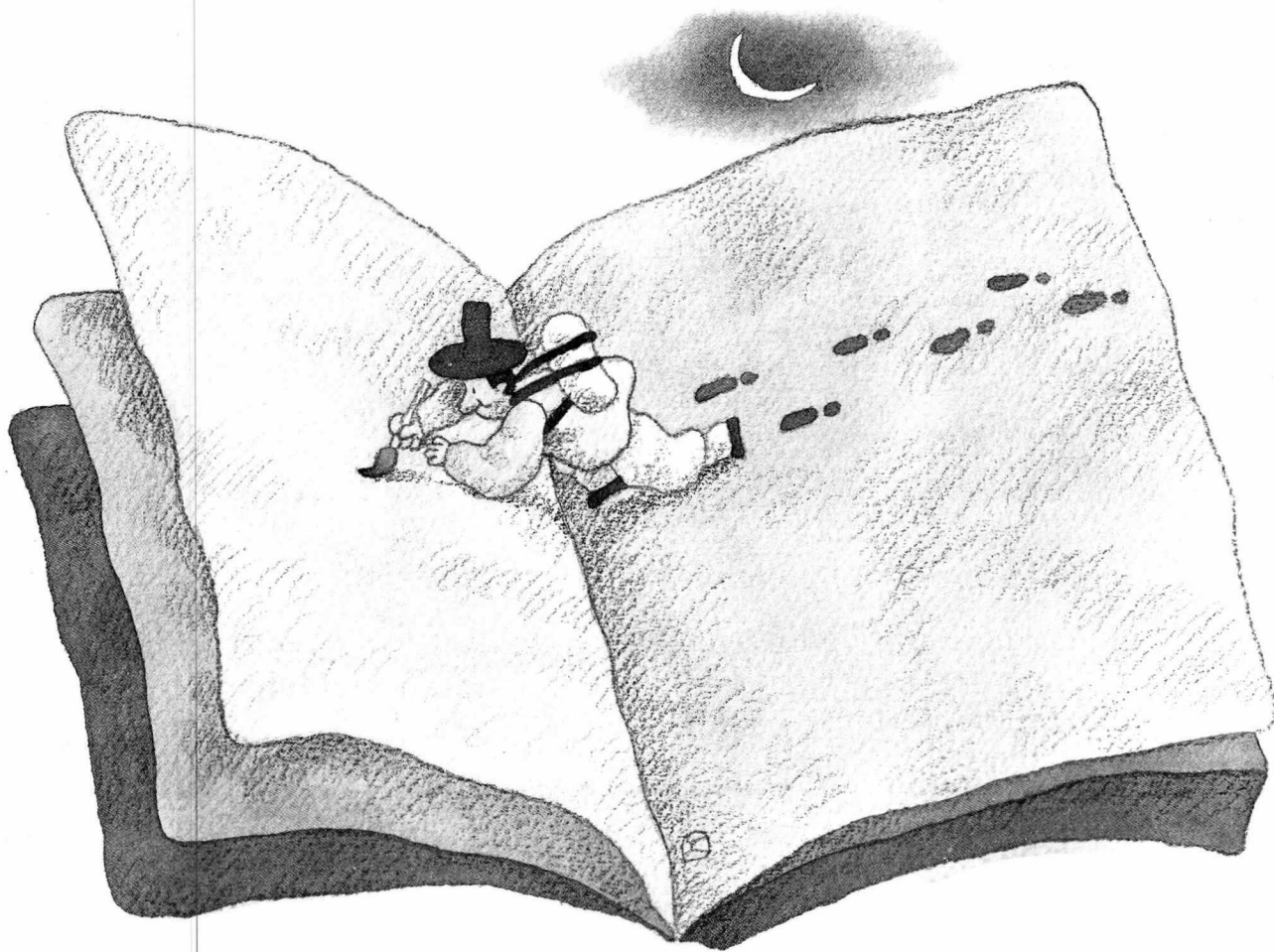
동양적인 학문과 서양적인 학문

그러나 불행하게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西洋으로부터의 수입'과 거의 동의어로 쓰여왔다. 현대적 의미로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서양에서 이뤄진 학설을 습득하는 일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30년 전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놀라운 도약을 성취한 오늘날에도 근본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됨이 정직한 나의 고백이다.

동양적 학문과 대조해서 서양적 학문을 말하고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구별함이 타당하지만 사실상 오늘날 일반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학문' 일반, '철학'의 개념은 대체로 서양적인 '학문' '서양철학'의 뜻을 갖게 되었다. 동양철학과 서양철학간의, 동양적 학문과 서양적 학문의 우열을 가리기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은 역사적, 세계문화사적 사실이 되고 말았다. 싫든 좋든 우리들의 일상적 사고나 의식도 이미 여러 차원에서 서양화되어가고 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사고와 가치관을 찾아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의 고유한 사상적 전통도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앞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의 창조도 위와 같은 우리의 사상사적 사실을 냉정히 의식하고 그런 의식에 뿌리를 댈 수밖에 없다.

서양적 사고의 지배적 압력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독창적인 사고를 펴나갈 수 없고 우선 과거의 서양사상은 물론 오늘의 서양사상에 대한 정보를 흡수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사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정은 철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학'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이 한국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우선 서양에서 이미 존재하는 학문들을 습득하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어·불어·독어와 같은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정력을 소비해야 한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서양인들보다 서양의 학문을 옹계



소화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학설을 창조적으로 세워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 독창적인 학설을 세우려는 의욕을 갖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서양적 학문을 옹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문화적, 그리고 어학적 이질성 때문에 그러한 작업에서조차 자신의 문화전통속에서 자신의 언어로 학문을 하는 서양학자들과 경쟁하기가 어렵고 벽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괴로운 상황은 인문사회과학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의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가 한 철학자에 관해서나 또는 한 철학적 문제를 깊이 연구한다 할 때도 그 철학자의 철학사적 맥락 그 철학문제의 정신문화사적 맥락이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될 것 같다. 바꿔 말해서 그 철학자 혹은 그 철학적 문제의 깊은 '의미'가 파악되지 않고 따라서 학문이 '단편적'이고 허공에 떠 있게 되는 성격을 띠게 된다. 서양에서 문제되는 새로운 사상이 한국의 역사, 문화사, 사상사적 맥락은 말할 것도 없고 서양에서의 사상사, 사회사 등과의 맥락

과도 상관없이 지나가는 유행처럼 바람과 같이 스쳐가는 우리의 학문일반,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아직까지의 풍토도 위와 같은 우리의 역사적 상황에서 이해된다.

그러므로 최근 '국적' 없는 학문이 의식되기 시작한 것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며,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 그리고 삶과 관련이 있는 자주적 학문의 필요성과, 급변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학문의 필요성이 어느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음 또한 마땅한 움직임이다.

이제 어떤 삶을 다시 시작하려는가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주장이 너무 성급하고 단순해서 철학뿐만 아니라 학문일반이 지나치게, 그리고 사리에 맞지 않게 정치화, 아니면 사회화되는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적 요청이나 경제적 압력 또는 권력이나 허영심 때문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학자와 정치가, 철학자와 목사나 사회운동가 또 저널리스트가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다. 사회전체가 그러하지만 학계도 어쩐지 들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모든 학문, 고고하기를 자처하는 철학도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정치 등의 구체적 삶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학문, 특히 철학이 곧 정치적 활동이 아니며 철학자가 곧 도덕적 사회운동가가 아니다. 만일 정치가 사회운동가와 학자, 목사와 철학자가 혼돈되는 한에서는 한국의 학문적 발전 철학적 성취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반적으로 급변하는 한국의 풍토에서 한 학자가 자신의 학문적 탐구에만 열중하고 한 철학자가 고독한 자신의 철학적 사색에만 몰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학문을 위해서는 정치와 학문을 혼돈해서는 안되며 철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설교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한국을 떠나 30년을 객지를 헤매다가 나는 다시 조국의 땅에 발을 디디고 또 한번 돌아와 다시 삶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의 한국에서, 오늘의 한국 철학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다시 시작하려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맡은 강의에 충실하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대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도대체 철학이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철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사고를 정리하고 넓히고 세계와 자신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외국 대학에서 은퇴하고 돌아온 나에게 좋은 물리적 환경 속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꼭 고마운 행운이다.

또한 가급적이면 많고 다양하게 한국에서 철학하는 젊은 동료들과 접촉을 갖고 그들로부터 여러가지를 배우고자 한다. 비록 나이는 많은 편이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젊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시간이나 능력이 허락하는 대로 많은 학회에 참여하고 싶다. 미국생활을 청산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의 국제적 학회와도 능력이 미치는 한 계속 유대를 갖고 논문을 발표할 계획도 세워 본다.

나는 그동안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책을 냈다. 물론 계속해서 저서에 집중할 것이다. 우선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합理性'에 관한 책과 또한 '철학적 인간학'에 관한 저서에 손을 댈 예정이다. 공과대학에 있게 된 이유도 있어 '합理性'의 한 문제로서 '과학철학'도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다. 이밖에도 허다한 철학적 문제들이 나의 흥미를 끈다.

철학적 저서 외에도 나는 가능하면 자주 詩作에도 계속 손을 댈 욕심이다. 시인들은 시인들대로 철학자들은 철학자들대로 다같이 나의 지적체함을 외도로만 간주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의 지적·정신적 생활은 哲學만으로는 또는 詩作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사실 그 두 가지 작업은 궁극적으로 단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똑같은 의욕의 두가지 표현이라고 믿는다.

철학을 하든 詩를 쓰든,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렇지 못하든간에 나는 그동안의 미약한 경험과 독서와 사색을 바탕으로 정말 나의 목소리를 찾아보고자 애써 보겠다. 나의 지적 그리고 실존적 삶을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이다.

지금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 마지막 시작임을 의식할 때 내 목소리를 찾아보겠다는 욕망, 내 자신에 정말 정직하고 충실해 보겠다는 내면적 요청은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